

곡성군 지정 첫 향토문화유산 내년 1월 탄생

영귀서원·구암사·효자 신흥구 정려·무곡사 4건 발굴 지정 예고

곡성군의 첫 향토문화유산이 내년 초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지난 9일 지역 내 문화유산 영귀서원·구암사·효자 신흥구 정려·무곡사 총 4건을 발굴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유서 깊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은 앞으로 30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역사·문화유산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곡성군 향

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며, 빠른 내년 1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곡성군에는 지난 2017년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향토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된다. 2024년 12월 현재 곡성군에는 보물인 곡성태안 사적인선사탑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4점과 전라

남도 지정 문화유산 36점이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정하여 가치를 후대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 관리에도 힘쓰겠다"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귀서원=1564년 육과현감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우로 훼손과 복설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실 영귀사의 걸상량문에 정확한 연대가 확인되고 초석은 원형의 다듬돌로 격식을 갖추고 있어 1900년대 중반에 복설되었지만 고적과 위계를 갖추고 있어 의미가 있다.

▲구암사=최초 1799년 건립되어 청송심씨 4현을 제향한 사우로 1868년 훼손되어 1906년 유허비를 세우고 1950년대 이후 사우를 복설하였다. 구암사는 인근에 심광형이 건립한 국가민속문화유산 곡성 제호정 고택, 명승 함허정 일원과 역사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효자 신흥구 정려=정려 내부에 걸려 있는 명정 편액과 정려기 편액 2매가 효자 정려를 받은 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우만의 '송사집'에 '증감찰신공정려중수기'가 있어 1899년 정려 중수 사실을 알 수 있는 곳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무곡사=문중에서 전하는 상량문과 기문에 1955년 조원길을 주벽으로 조대성과 정소를 배향하였다고 하며, 주벽인 조원길은 공양왕을 옹립한 1등 공신으로 옥천부원군에 봉해진 인물로 이색과 더불어 오은으로 불린 역사적 인물을 모신 곳으로 의미가 있다.

여수애 고향사랑기부 연말 답례품 2배 드립니다

22일까지 '1+1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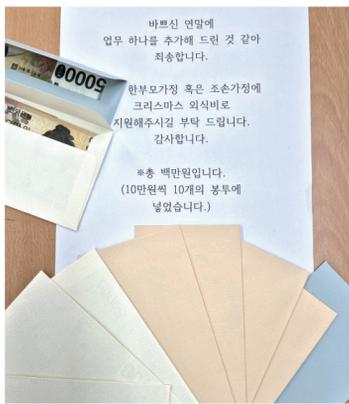
여수시가 연말을 맞이해 오는 22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참여자에게 추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여수애 고향사랑기부, 연말 두 배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진행 기간 여수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시는 당첨자 30명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오는 23일 카카오톡 '여수사랑고향사랑기부제'에 당첨자를 공지한 후, 답례품 중 가장 인기 상품인 갖가지, 여수상품권, 별치세트 중 하나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 한 해 고향사랑기부제로 여수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매곡동에 나타난 크리스마스 천사

"조손가정 외식비로 써주세요" 100만원·손편지 놓고 사라져

연말을 맞아 순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산타코스'가 나타나 온정을 전했다. 지난 5일, 순천시 매곡동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현금 100만원과 편지가 담긴 봉투를 놓고 갔다. 이날 복지센터 직원이 봉투를 놓고 가는 기부자를 발견하고 곧장 따라가 이름을 묻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편지에는 '바쁜 연말에 업무 하나를 추가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가정에 크리스마스 외식비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백만원입니다. (10만원씩 10개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순천시 매곡동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현금 100만원과 편지.

송하다'면서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에 크리스마스 외식비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10만원씩 담은 봉투 10장도 함께 있었다. 매곡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 10세대에게 각 1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순순복 매곡동장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가족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졌다"라며 익명 기부자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지역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우수기관

229개 시군구 평가...호남 유일 선정

보성군이 호남지역에선 유일하게 올해의 지역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보성군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보성군은 호남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보성군은 ▲복지자원 발굴 및 기관 간 공유를 통한 자원배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원개발 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한 슈퍼비전 제공 등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등이 높이 평가됐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평가는 ▲통합사례관리 운영 ▲자원조사·정비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온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든든한 복지정책과 복지위기가구 제로화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찾아가는 건강 복지600사업' 등을 통해 중단없는 군민 행복 시대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광양청년꿈터'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광양시는 연말을 기념해 광양청년꿈터를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광양청년꿈터 12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연말을 맞아 유튜브를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광양청년꿈터 생방송을 13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에서는 광양청년꿈터 소식 및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광양시 청년들의 특별 사연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양청년꿈터 라이브방송 게시판에서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사연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연이 채택된 청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청년꿈터 미리 출시 이벤트 게시물이 12일까지 댓글을 달고, 13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경품 증정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도서관 북명, 미션 통해 몰입감 높인다

구례매천도서관 수험생 대상 운영 수능 이후 마음의 안정 기회 제공

구례매천도서관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구례고 3학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북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기 성장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 북명'은 ▲가장 인상적인 책 제목 찾기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찾기 ▲도서관과 함께 사 진 찍기 등 흥미로운 미션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몰입하도록 설계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능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대학 입학 전 도서관과 독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조용한 환경에서 책에 몰입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다양한 책을 접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천도서관 관계자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유를 찾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매천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매천도서관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북명'을 운영했다. <구례군 제공>

복지부 아동정책 평가 광양시 3년 연속 우수지자체



광양시가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영향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명동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년 제12회 아동정책포럼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지자체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광주·전남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장관표창을 받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2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꿈꾸는 아이, 키우는 광양,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으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광양시는 아동의 4대 기본권(비차별 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 아동의견 존중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대해 자체평가를 한 결과 적극성, 충실성, 이행의 적절성 등 정량·정성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양경순 광양시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중요한 제도로, 광양시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앞으로도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철새보고 걸으면서 한해 마무리 하세요

순천시 '웰니스 라이프' 운영

"철새 보며 터벅터벅 순천 남파랑길 걸으며 한해 마무리 어떠세요." 순천시가 연말을 맞아 남파랑길서 힐링시간을 가질 수 있는 1박2일 여행상품 '순천 웰니스 라이프'를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여행상품은 남파랑길(61코스·순천만습지~장삼마을)을 걷는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 감상뿐만 아니라 2일 동안 순천을 품은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며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겨울 철새 탐조 성지로 알려진 순천만습지에서 생태해설사와 함께 탐조하고, 목길을 따라 사운드 워킹 하며 소리로 듣는 풍경을 감상한다. 걷기 후에는 순천의 자연을 담은 식사를 하고 아로마 테라피 등을 통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둘째날에는 사운드 워킹을 통해 채집한 소리를 들으며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시간을 갖고, 발도장 페인트로잉을 통해 순천 치유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여행상품은 운영 기간 중 매주 토·일요일 2회씩(회당 14명) 운영하며, 참가비는 1인당 7만원이다. 참가 신청은 순천시 누리집 또는 구글폼(https://forms.gle/W1T4sueYmwtSNvk66)을 통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진정한 쉬어 어떤 것인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연말에 순천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길을 나아가길 힘을 얻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